

일제강점기 기록자료로 본 북한의 조선후기 불화

-함경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이 용 윤*

- I. 머리말
- II. 사찰문서에 기록된 조선후기의 북한 불화와 제작 화승
- III. 문서와 사진 속 북한 불화와 국내 유입 북한 불화
- IV. 18세기 함경도에서 활동한 화승과 승려문중
- V. 맺음말

I. 머리말

북한 사찰과 문화재의 조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전후로 학계에서는 사찰전각을 포함해 불상, 석탑과 승탑, 범종 및 공양구 등 북한불교미술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화는 전각이나 불상을 소개하는 자료에서 부차적인 문화재로 비취질 뿐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 자료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에서 『양천사』(2003)와 『우리절 안내』(2002)가 출판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전통사찰』(2011)

*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관

과『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2014, 이하 북한의 불교미술)이 간행되는 것과 맞물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제강점기 문서가 공개되면서 북한의 조선후기 불화의 과거와 현재를 유추하고 연구할 수 있는 단초가 생겨났다.¹

일제강점기에 전국의 사찰은 사찰령에 따라 본말사 체제로 개편되었고 각 사찰의 불상, 불화, 서적, 석물, 고문서 등은『재산대장』,『재산목록』으로 문서화되고 유리건판으로 기록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사찰 재산문서와 유리건판 가운데 북한지역의 사찰, 특히 기록이 충실한 함경도와 강원도의 사찰을 중심으로 북한 사찰에 봉안된 조선후기의 불화와 이를 조성한 화승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의 사찰 재산문서에는 이름이 생소한 화승도 있지만 義謙, 覺聰, 雪訓, 有誠, 尙謙, 石翁 喆有처럼 조선후기에 전라도, 경상도, 서울·경기도, 강원도 등지에서 활동한 이름난 화승의 이름도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기록에 전하는 이들 화승의 활동과 화풍을 고찰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유리건판과 2000년 이후 남북에서 공개한 사진, 그리고 국내에 유입된 북한 불화 등을 비교 검토하여 조선후기 북한 불화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조선후기에 한반도 남쪽에서 지역성을 가지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화승이 북한 사찰에서도 화적을 남길 수 있었던 배경을 승려문중과 연결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Ⅱ. 사찰 문서에 기록된 조선후기의 북한 불화와 제작 화승

1. 일제강점기 북한 사찰 현황과 사찰 재산문서

한반도의 절반 면적을 차지하는 북한지역의 사찰은 시대 변화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동에 의한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조선시대에는 600여개 이상의 사찰이 존속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400개 이상의 사찰이 유지하였다. 불교계의 체제는 세종 6년(1424)에 단행한 禪敎兩宗本山 36寺 체제가 명종 20년(1565)까지 지속되다가 1899년에 首寺刹制가 시행되기도 하였으며

¹ 『양천사』(조선문화보존사, 2002); 리인철·류덕인, 『우리절 안내』(조선문화보존사, 2003);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북한의 전통사찰』 1~10(양사재, 2011);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국립중앙박물관, 2014);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조사자료(<http://www.museum.go.kr>)

1902년에는 불교계 자체적으로 大中小山制를 운용하려 했으나 무산되고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本寺制가 실시되었다. 본사제는 1911년에 공포한 조선사찰령에 따라 30본사제로 구분하였다가 1924년에 사찰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31본사제로 재정립되었다. 북한지역에는 폐엽사, 성불사, 영명사, 법흥사, 보현사, 유점사, 석왕사, 귀주사 등을 본사로 하는 8개 본사와 이에 속한 말사가 분포하였다.²

일제강점기에는 사찰령 공포와 시행에 맞춰 전국 사찰에서 『본말사재산대장』(1917~1920, 이하 재산대장)과 『사찰령 개정 재산목록』(1926, 이하 재산목록)이 작성되었고 이 내용은 『관보』(1932~1933)에 공개되었다. 『재산대장』, 『재산목록』, 『관보』에는 불상과 불화를 포함해 공양구, 경전, 승탑 등의 貴重品뿐만 아니라 불기, 향로, 요령 등 日用備品에 대한 수량[員數], 재질[品質], 형태[形狀], 크기[寸法] 등 기본사항이 기록되었고 주요사항인 유래, 제작 시기, 제작자 등을 적는 作者及傳來과 摘要는 대부분 생략되었다. 일제강점기 사찰 문서 가운데 『재산대장』, 『관보』에 비해 『재산목록』은 상당수 빠져 있으며, 북한인 경우 영명사, 유점사, 석왕사, 귀주사의 본말사 『재산목록』만이 전한다(표 1).

〈표 1〉 일제강점기 작성 북한 지역 본말사 자료 현황

본사	재산대장	재산목록	관보	본사	재산대장	재산목록	관보
22본사 폐엽사	○		○	26본사 보현사	○		○
23본사 성불사	○		○	28본사 유점사	○	○	○
24본사 영명사	○	○	○	30본사 석왕사	○	○	○
25본사 법흥사	○		○	31본사 귀주사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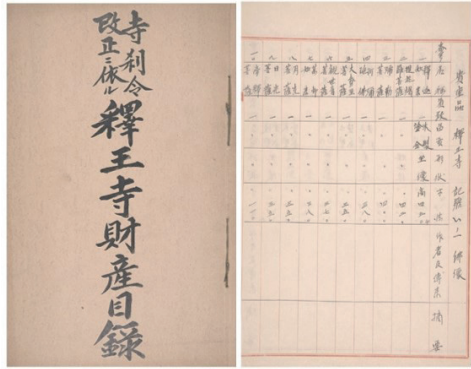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북한 사찰 재산 자료 가운데 주목되는 문서는 함경도와 강원도에 분포한 유점사, 석왕사, 귀주사 본말사에 관한 『재산목록』이다. 이들 사찰의 『재산목록』에는 기본사항만이 아니라 주요사항인 작가 및 전래에 관한 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었다. 특히 불화 항목이 상세한데, 『석왕사 재산목록』을 보면 “三藏幀 釋清案 雍正九年七月二十五日”, “地藏幀 釋道荷 乾隆七十四年六月造”, “現王幀 釋佑謙 道光十二年六月”, “七星幀 金石翁 光緒七年五月日”의 내용처럼 옹정 9년 삼장탱을 제작한 청안, 건륭 74년에 활동한 도하, 도광 12년 유겸, 광서

² 조선시대 사찰 수와 불교계 체제 변화에 관한 연구로 李炳熙, 『朝鮮時期 寺刹의 數의 推移』, 『歷史教育』 61 (1997), pp. 31-68; 황인규, 『북한지역 사찰의 불교사적 의의』, 『대각사상』 17 (2012), pp. 133-168.

17년과 광무 9년에 삼신괘불탱·석가여래탱·아미타불탱·약사여래탱을 조성한 김석옹 등 석왕사 모든 전각에 봉안되어 있는 불화의 명칭과 조성 시기, 제작 화승이 자세히 적혀 있다(도 1).³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현존하였던 사찰 수가 반증하듯 북한 사찰마다 봉안되었던 불화와 이를 조성하기 위해 활동한 화승의 수는 상당히 많았겠지만, 현재 학계에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장안

사·신계사·표훈사를 거점으로 활동한 石翁喆有, 古山竺演 등의 금강산화파 화승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⁴ 『석왕사 재산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지역에 분포된 사찰의 재산을 정리한 이 일제강점기 문서는 19세기 후반~20세기에 북한에서 활동한 화승만이 아니라 오늘날 행정구역상 북한지역에 속하는 함경도와 강원도 사찰에 봉안된 조선후기의 수많은 불화와 이를 제작한 화승의 실체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도 1 『석왕사 재산목록』, 1926년경

2. 함경도·강원도의 조선후기 불화와 제작 화승

유점사, 석왕사, 귀주사 등 3개 본말사 『재산목록』에 기록된 불화의 조성 시기를 살펴보면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조성된 불화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제작 화승도 慶船應碩, 萬波定翼, 華山在根, 錦雲肯律 등을 비롯한 석옹철유, 고산축연 등 소위 학계에서 서울·경기 화승과 금강산 화승이라 불리던 이들이 대거 활동하였다.⁵

³ 석왕사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전각이 소실되었으며 최근 북한에서 복원사업을 진행하여 2011년에 불이문, 조계문, 호지문, 누각 등이 복원되었다. 조선시대 석왕사는 함경남도 안변군 설봉산 석왕사로 표기되었지만 광복 후 함경남도 고산군과 안변군이 강원도로 이속되면서 현재 북한에서는 강원도 고산 석왕사로 알려져 있다.

⁴ 안귀숙, 「朝鮮後期 佛畫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관한 研究(上)」, 『미술사연구』 8(1994), pp. 80-83.

⁵ 19세기 후반 서울·경기 화승과 금강산 화승의 활동에 관한 연구로 이용윤, 「華溪寺 觀音殿地藏三尊圖 研究」, 『미술사연구』 19(2004), pp. 99-121; 신광희, 「朝鮮末期 畫僧 慶船堂 應碩 研究」, 『불교미술사학』 4(2006), pp. 284-314; 최엽, 「高山堂 竺演의 佛畫 研究」, 『동양미술사학』 5(2004), pp. 165-190; 「近代 서울·경기지역 佛畫의 畫師와 畫風」, 『佛敎美術』 19(2008), pp. 67-128; 「韓國 近代期의 佛畫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2); 이혜인, 「近代 畫僧 石翁堂 喆有의 佛畫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7).

이들 화승의 활동 범위를 보면 서울·경기 화승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강원도 유점사와 유점사 말사인 사찰에 집중되어 있으며 금강산 화승 고산축연과 석왕사 화승 석옹철유가 조성한 불화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함경도에서는 석왕사 전각에 봉안된 34건 불화 가운데 15건이 석옹철유가 1881~1905년에 조성한 불화일 정도로 이 지역에서 그의 활동은 두드러졌다. 석옹철유의 불화가 함경도와 강원도 사찰에 다수 봉안된 이유는 석왕사에서 출가한 후 신계사에서 머물며 불화 제작에 매진하면서 석왕사 주지(1898), 안불사·지흥사·운주사 건성암·운수사 주지(1911~1915)를 역임하며 사찰 불사에 힘쓴 그의 삶과 관련이 깊다.

『재산목록』에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조성된 불화와 제작 화승 외에도 18세기 불화와 이를 조성한 화승에 관한 기록도 상당하다. 『재산목록』에서 주목되는 화승은 覺聰, 七惠, 雪訓, 尙謙 등 18세기 서울·경기지역에서 활동한 화승들과 18세기 후반 경상도를 거점으로 활동한 화승 有誠, 그리고 18세기 전반 전라도를 거점으로 활동한 화승 義謙 등이다. 이들이 조성한 불화에 관한 기록은 함경도 사찰인 석왕사와 귀주사의 본말사에 집중되어 있다.

각종과 칠혜를 대표하는 불화는 <봉선사 비로자나괘불도>(1735)이다(도 2). <봉선사 비로자나괘불도>를 조성할 당시 각종은 수화승, 칠혜는 차화승을 맡아 활동하였다. 이후 각종은 수화승으로 <신록사 삼장보살도>(1758)를 제작하고 칠혜는 楚欽이 주관하는 <학림사 삼신괘불도>(1739 추정)와 泰巖이 조성하는 <신흥사 영산회상도>(1755)에 차화승을 맡아 활동을 이어갔다.⁶

서울·경기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한 각종과 칠혜의 알려진 행적 외에도 『석왕사 재산목록』과 『영취암 재산목록』에서 1740년에 함경도 안변에서 불화를 제작한 두 화승의 행보가 추가로 확인된다. 두 사찰의 『재산목록』을 살펴보면, 각종은 1740년 5월에 석왕사 영취암의 석가모니탱, 지장탱, 칠성탱, 신중탱, 현왕탱, 감로탱 등 법당의 三壇佛畫를 제작하였으며 칠혜 역시 같은 시기



도 2 <봉선사 비로자나괘불도>, 1735년, 비단, 805 x 459cm(『한국의 불화-봉선사본말사』 33, 도 1)

⁶ 박도화, 「鶴林寺 毘盧遮那三身掛佛幀畫」, 『聖寶』 6(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4), pp. 31-33; 유경희, 「LA카운터 미술관 <神興寺 靈山會上圖>」, 『강좌미술사』 45(2015), pp. 53-76.



도3 <신록사 삼장보살도>, 1758년, 비단, 173×280cm(『한국의 불화-용주사본말사』25, 도18)

각종의 함경도 활동과 연계하여 주목되는 화승은 설훈이다.⁷ 설훈은 1758년에 <고운사 사천왕도>를 제작하고 같은 해에 <신록사 삼장보살도> 조성 참여하면서 수화승 각종과 화연을 맺었다(도3). 지금까지 알려진 설훈의 초기 행적은 1758년의 고운사 신록사 불화 제작 이후 1776년에 조성된 <수타사 지장시왕도>뿐이다. 설훈의 공백기로 알려진 1758년~1776년에 그의 행보는 함경도 단천 보현사에서 확인된다. 『보현사 재산목록』에는 1762년에 보현사의 후불탱, 삼장탱, 신중탱, 현왕탱 등을 제작한 화승으로 설훈이 기록되어 있다. 1762년에 설훈이 제작한 단천 보현사의 불화는 1758년에서 1776년 사이 그의 활동 반경이 경상북도, 경기도, 강원도만이 아니라 함경도까지였음을 설명해 준다.

단천 보현사 불사 이후 1788년에 설훈은 혜청, 원유 등을 이끌고 이원 복흥사에서 삼존불상을 새로 제작하고 영산회탱, 감로탱, 신중탱 등을 제작하면서 함경도에서 활동을 이어갔다.⁸ 1788년 복흥사 불사는 <萬德山福興寺事蹟記>을 통해 학계에 알려진 설훈의 불화 조성 내용과 다르게 『복흥사 재산목록』에는 尙謙이 주요 제작 화승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재산목록에는 1788년에 조성된 후불탱[영산회탱], 감로탱만이 아니라 해수관음탱과 독성탱을 제작한 화승에 상점을 적고 설훈은 신중탱 제작자로만 기록하였다. 복흥사 사적기와 『재산목록』에서 차이를 보이는 화승의 기록은 誤記라기보다 1788년 복흥사 불사의 首長으로서 설훈이 삼존불상 제작에 매진하고 그가 이끄는 화승 집단에서 실력이 뛰어난 상점이 불화 제작을 전담한

에 석왕사의 지장탱(1740. 5)을 조성하였다. 1740년에 안변 석왕사 일대에서 활동한 각종과 칠혜의 존재는 <봉선사 비로자나괘불도> 조성 이후에도 두 화승이 함께 작업하며 함경도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사실과 칠혜가 강원도 <신흥사 영산회상도>(1755) 조성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⁷ 최학, 「조선 후기 화승 관허당 설훈 연구」, 『강좌미술사』39(2012), pp.91-194.

⁸ <萬德山福興寺事蹟記>, “乾隆五十三年戊申新大佛像三尊與靈山會佛幀甘露神衆幀化主大裕尙英 良工雪訓 惠清圓宥”. 안귀숙, 앞의 논문, pp.69-70.

것으로 해석된다.

『복흥사 재산목록』에서 확인된 화승들의 불화 제작 양상은 그동안 막연하게 추정되었던 설훈과 상점의 화연관계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복흥사 불사와 같은 해 4월에 진행된 <남장사 영산회괘불도>(1788)와 맞물려 설훈이 이끄는 화승집단의 일원인 상점이 함경도와 경상북도를 오가며 작업을 병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같은 시기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불사를 추진하는 방식은 1774년에 문수사 청련암과 마곡사 불사에서 확인된다. 당시 설훈이 스승, 경념, 광륜 등과 주고받은 서신에는 사찰 상황에 따라 불사 진행과 재료 수급을 조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⁹ 1774년 상황과 마찬가지로 1778년에 진행된 복흥사와 남장사 불사도 복흥사의 설훈을 중심으로 남장사 불사를 지휘하는 敬還, 그리고 실제 불화 제작을 담당 상점 사이에 체계적인 작업 방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¹⁰

한편, 복흥사 사적기에서 1788년 불사에 설훈을 보좌한 혜청에 관한 기록은 『복흥사 재산목록』에 1796년에 지장탱과 칠성탱을 조성한 제작자로 찾아진다. 이 내용역시 사적기의 “嘉靖元年丙辰觀音願佛七星現王四幀 自發願化主頓識 龍面處澄惠清”과는 차이를 보인다. 1788년 처징과 혜청이 관음탱과 현왕탱을 조성했다는 사적기 기록과 1788년에 상점이 해수관음탱과 현왕탱의 조성자라는 재산목록의 차이는 향후 『재산목록』을 기입하는 방식이 연구되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목록』에서 확인되는 복흥사 불사에서 설훈에 이어 혜청이 수화승으로 두각을 보였던 것은 1762년부터 함경도에서 활동한 설훈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18세기 후반 함경도에서 활동한 또 한 명의 화승으로 유성을 꼽을 수 있다. 유성의 주 활동지는 경상도 일대로



도4 <개심사 영산회괘불도>, 1772년, 비단, 921×553cm(『한국의 불화-수덕사본말사』27, 도23)

⁹ 설훈이 1774년에 문수사 청련암 불사를 진행하면서 마곡사 불사를 조율하는 내용은 강영철, 「1774년 文殊寺 靑蓮庵佛事の現場資料-首畫僧雪訓의 書信을 중심으로-」, 『동학미술사학』7(2006), pp.341-351.

¹⁰ 설훈과 경환, 상점의 영향관계 및 1788년 4월 8일~28일 사이에 제작된 남장사 영산회괘불도에 관한 글로 이용윤, 『佛事成功錄』을 통해 본 남장사 괘불, 『尙州南長寺掛佛幀』6(통도사성보박물관, 2001).

충청남도 서산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산목록』을 통해 1775년 함경도 고원 양천사의 후불탱과 감로탱, 1780년 함흥 불지암의 시왕탱, 그리고 1781년 영흥 지흥사의 후불탱과 삼장탱을 조성한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또한 『양천사 재산목록』에는 유성이 <개심사 영산회괘불도>(1772)를 제작할 때 보조화승으로 참여한 守印이 수화승 자격으로 1780년에 지장탱과 신중탱을 제작한 사실도 확인된다(도 4). 양천사에서 확인되는 수화승 수인의 활동은 설훈과 상겸, 혜청의 관계처럼 1775년부터 1781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함경도 일대에서 활동한 유성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한다.

그동안 알려진 유성의 활동지역과 활동 시기를 고려해보면, 1775년 양천사 불사를 계기로 유성은 함경도 일대 불화 작업에 매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 기간에 <은해사 기기암 신중도>(1777), <직지사 극락세계구품도>(1778)를 제작하기도 하였지만 1775년 통도사 대규모 불화 제작 때에는 차화승으로 포관, 정충을 보좌하거나 8폭의 팔상도 중 1폭만을 맡아 제작에 참여하였고, 1781년과 1785년에는 승윤과 평삼이 주관하는 <쌍계사 삼세불도>와 <수도사감로도>의 보조화승으로 활동하는 등 다른 수화승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재산목록』을 통해 확인되는 조선후기에 함경도에서 활동한 화승 중 가장 주목되는 이는 의겸이다.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의겸은 학계에 의겸화풍과 의겸화파라는 용어가 통용될 정도로 독자적인 화풍과 궁척, 색민, 회밀, 채인 등 많은 화승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화승이다.¹¹

의겸은 1713년 장흥 보림사 불화의 보조화승을 시작으로 1757년 구례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도 제작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조계산의 송광사와 선암사, 지리산의 화엄사와 실상사 등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와 해인사, 청곡사, 운흥사, 갑사 등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일부지역에서 화적을 남겼다. 이처럼 기준에 알려진 의겸의 활동권역은 조선시대에 소위 三南으로 불리던 남부지역이며, 『재산목록』을 통해 뜻밖에 석왕사와 인접한 함경도인 안변 보현암, 영덕 안불사, 덕원 무달사에서 활동한 행보가 확인된다.

¹¹ 의겸에 관한 글로는 안귀숙, 앞의 논문, pp.63-136; 『朝鮮後期佛畫僧의系譜와義謙比丘에 관한研究(下)』, 『미술사연구』9(1995), pp.153-201.

〈표 2〉 석왕사 말사 『재산목록』 수록 의겸 불화

사찰명	명칭	品質	形狀	寸法	作者及傳來	摘要	비고
안변 보현암	釋迦如來幀	紙製	掛圖	縱六〇〇 橫七〇〇	安政五年三月釋義兼		1732년 추정
	地藏幀	〃	〃	〃 三〇〇 五〇〇	安政十五年釋儀兼		1732년 추정
	十王幀	〃	〃	〃 三〇〇 五〇〇	雍正十年十月義兼		1732년
덕원 무달사	後佛幀	絹製	掛圖	縱五四〇 橫三九〇	雍正十一年夏義謙作 太白山鎮靜寺ヨリ移來		1733년
영덕 안불사	阿彌陀佛幀	布製	掛圖	縱八〇〇 橫一二八〇	畫師義謙施主義淑 乾隆二年丁巳七月日題		1737년

함경도 안변 보현암에 전하는 의겸 불화는 주불전과 명부전 불화인 석가여래탱과 지장탱 및 시왕탱이다. 『보현암 재산목록』에는 이 3건의 불화에 대한 제작 연호를 다르게 기입하고 있으나 의겸의 활동시기와 명부전 불화로 지장탱과 시왕탱이 동시에 같은 화승에 의해 일괄로 제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현암 불화는 1732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표 2).¹² 석왕사의 다른 말사인 무달사에도 1733년에 의겸이 제작한 후불탱에 관한 기록이 있다. 『무달사 재산목록』의 작가와 전래



도 5 <실상사 지장시왕도>, 1726년, 비단, 209.5×209cm (『한국의 불화-대학박물관(1)』 18, 도 18)

¹² 安政은 일본에서 1854년~1859년인 6년간 사용한 연호이다. 이 기간은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의겸의 활동 기간과 맞지 않으며, 『보현암 재산목록』에 기록된 또 다른 안정 15년은 이 연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정연호는 잘못 산정된 연호일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시왕도의 제작 시기인 옹정 10년인 1732년에 근거해 석가여래탱과 지장탱을 같은 연대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처럼 『재산목록』에는 조선시대에 사용한 중국연호만이 아니라 조선왕의 재위시기, 일본 연호를 혼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하였다. 중국 연호, 조선왕 재위기, 일본 연호를 동시에 사용한 예로 통도사 『寺有財産目錄-佛像及古物之部』에 의겸작 대광명전 지장보살도에 기록된 “日本延亨二年朝鮮英祖二十年乙丑五月清乾隆十年”가 있다.

사항에 의하면 이 불화는 태백산 진정사에서 이안한 것이다. 진정사는 『범우고』(1799)와 『가람고』에 함경도 영덕에 현존하는 사찰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폐사되었는지 1910년에 간행된 『사찰고』에는 사찰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진불사가 위치한 함경도 영덕의 안불사에서 1737년에 의겸이 조성한 아미타불탱이 소장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안불사 재산목록』에는 의겸의 아미타불탱만이 아니라 불화 11건이 적혀 있으며, 이 중 신중탱은 의겸이 <실상사 지장시왕도>(1726), <다보사 영산회괘불도>(1745), <개암사 영산회괘불도>(1749)를 제작할 때 보조화승이었던 穎案이 1736년에 조성한 불화이다(도 5). 불화의 제작 시기로 보면 의겸보다 영안이 안불사에서 먼저 두각을 보인 듯하지만 이 역시 1732년부터 안변과 영덕에서 활동을 이어간 의겸의 영향력에 기반을 둔 조성 활동으로 해석된다.

Ⅲ. 문서와 사진 속 북한 불화와 국내 유입 북한 불화

북한 사찰에 불화가 봉안된 과거와 현재의 현황은 『북한의 불교미술』과 『북한의 전통사찰』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불교미술』에는 북한의 불화로 일제강점기 행정상 경기도 화장사와 대흥사, 황해도 심원사, 평안도 보현사, 함경도 양천사, 강원도의 유점사와 장안사 등의 7개 사찰의 16건의 불화가 소개되었다.¹³ 이 중 조성 시기와 제작 화승에 관한 기록이



도 6 <장안사 삼세불도>, 1821년, 1921년 촬영(『북한의 불교미술』, p.165)



도 7 <석남사 아미타불도>, 1827년, 비단, 237×284.4cm(『한국의 사찰문화재-경기도』2, p.21)

¹³ 정명희, 『북한의 불교회화』,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국립중앙박물관, 2014), pp. 130-181.

전하고 화풍을 고찰할 수 있는 곳으로 장안사와 양천사의 대웅전 불화를 꼽을 수 있다.

『장안사 재산목록』에는 대웅전 8건, 명부전 5건, 비로전 3건, 해광전 5건 등 총 21건의 불화가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1912년에 촬영한 유리건판 중 조성 시기와 제작 화승이 확인되는 불화는 장안사 대웅전 후불벽에 걸려 있는 삼세불도이다(도 6). 『장안사 재산목록』에는 3폭으로 구성된 후불탱에 관해 “道光元年 光一製”라 기록하였다.

<장안사 삼세불도>(1821)를 조성한 광일은 학계에 알려진 화승은 아니지만 여래를 비롯한 보살들과 십대제자, 사천왕 등의 얼굴 묘사와 신체 비례, 자세, 복식 표현 등이 1827년에 影雲義琬의 주도로 제작된 경기도 안성 <석남사 아미타불도>과 유사하다(도 7). 한편 삼세불도 중 한 폭인 아미타불도에서 왼쪽으로 날리는 백색 두건을 쓴 관음보살은 雙運熙圓이 조성한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서울 <수국사 감로도>(1832)의 백의관음보살의 표현과 연결된다.¹⁴

이처럼 광일이 조성한 <장안사 삼세불도>가 19세기 전반 서울-경기지역에서 제작된 불화와 화풍이 유사하다는 사실은 18세기부터 함경도에서 활동한 각종, 칠해, 설훈, 상겸 등의 활동이 이어 19세기 전반에도 지속되었으며, 이는 결국 앞서 살펴본 19세기 후반에 서울-경기 화승인 경선응석, 만파정익, 화산재근 등이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양상과 연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11년에 촬영한 양천사의 유리건판 속 영산회상도와 감로도는 『양천사 재산목록』에 기록된 1775년 유성이 제작한 후불탱과 감로탱의 존재를 재확인시켜준다. <양천사 영산회상도>는 석가불을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나란히 불단에 앉아 있고, 불단 아래에 합장을 하며 예를 표하는 두 명의 천녀를 중심으로 좌우에 사보살과 사천왕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석가삼존 좌우에는 육보살과 제자들 및 팔부중, 금강이 있다(도 8). 불단 위에 나란히 앉은 석가삼존과 합장을 한 채 예를 표하는 천



도 8 <양천사 영산회상도>, 1911년 촬영(『북한의 불교미술』, p.177)

¹⁴ <수국사 감로도>(1831)를 조성한 쌍운희원은 환성지안의 후손으로 함월해원·원월계홍·한암체정·정광광일·기허탄학의 법맥을 잇고 있으며 제자로 화승 중봉혜호가 있다. 강영철, 『19세기 초 경기지역 華嶽華潭門中の 畫僧』, 『동악미술사학』5(2004), pp. 148-149.



도9 <남장사 영산회괘불도>, 1776년, 비단, 1,007×588cm(『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남도 Ⅲ』1, p.21)

녀는 1770년에 유성이 수화승 富日을 모시고 제작한 예천 <서악사 영산회상도>의 존상 구성과 표현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양천사 영산회상도>에서 십대제자와 사천왕의 모습, 본존 정수리에서 발현하는 방광 표현, 구름의 외연을 색 대비로 강하게 처리하는 방식 등은 18세기 후반 불화의 화풍이라기보다 19세기 후반 불화에서 볼 수 있는 화풍이다. 이처럼 유성이 그린 <양천사 영산회상도>에서 보이는 선행된 화풍과 관련해 1776년에 조성된 <남장사 영산회괘불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도9).

<남장사 영산회괘불도>(1776)는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 전체를 펼쳐볼 수 없으나 1997년경에 촬영한 사진에서 乾隆이란 연호가 확인되며, 『남장사 재산대장』(1910년 추정)에는 건륭 41년인 1776년에 화승 煥希이 제작했다는 기록되어 있다.¹⁵ 괘불도를 조성한 환희는 알려진 화승은 아니지만 <남장사 영산회괘불도>는 석가불과 협시보살을 비롯해 가섭존자, 아난존자, 사천왕의 표현

에서 <양천사 영산회상도>와 화풍이 유사하다. 이는 18세기 후반의 보편적인 화풍은 아니지만 유성이 경상도에서 활동하던 시기에도 <양천사 영산회상도>와 같은 화풍이 화승들 사이에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양천사 감로도>는 18세기 후반 <봉정사 감로도>(1765)와 <용주사 감로도>(1790) 사이에서 나타나는 감로도 형식의 전승과 변화 과정을 잘 보여준다(도 10, 도 11, 도 12). <봉정사 감로도>는 유성이 보조화승으로 제작에 참여한 불화로, <양천사 감로도>와 비교해 화면 상단 좌우에 표현된 벽련대반과 칠여래, 아귀 사이의 전각, 그리고 아귀 주변에 그려진 죽음의 모습과 명부의 표현에서 그 영향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양천사 감로도>에서 화면 상단에 일렬로 표현된 칠여래와 관음보살·지장보살, 인로왕보살

¹⁵ 『남장사 재산대장』에는 두 점의 괘불도가 수록되어 있다. 한 점은 보광전에 있는 掛佛大會幀로 “乾隆四十一年五月日煥希畫成”이라 적혀 있고 다른 한 점은 극락보전의 掛佛大會幀으로 乾隆五十三年僧龍峰畫成“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 두 불화 외에도 탁화가 조성한 <남장사 감로도>(1701) 등 현전하는 불화만이 아니라 지금은 사중에 전하지 않는 신검이 조성한 신중도 등 남장사를 비롯한 산내암자 봉안 불화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



도10 <양천사 감로도>, 1911년 촬영(『북한의 불교 미술』, p.181)



도11 <봉정사 감로도>, 1765년, 비단, 209.5×209cm(『한국의 불화-고운사본말사(하)』, 24, 도10)



도12 <용주사 감로도>, 1790년, 비단, 156×313cm(대한불교조계종제공)

과 중단의 시식단과 단독으로 그려진 아귀, 하단 좌우에 소나무 표현 등은 상검이 조성한 <용주사 감로도>와도 연결되어 흥미롭다.

유성과 상검의 화연 관계는 알 수 없지만 상검의 스승인 설훈과 유성의 활동 양상을 보면 서로의 영향권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설훈과 유성이 경상북도를 기반으로 활동한 점과 1767년~1774년 서산 개심사와 문수사에서 활동한 설훈과 1772년 개심사에서 활동한 유성, 그리고 1785년 직지사 천불상 조성 때 두 화승이 수화승과 차화승으로 작업을 같이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훈을 중심으로 한 유성과 상검의 영향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의 유리건판 외에도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이루어지던 2000년대를 전후로



도 13 <아미타불회도>, 1662년, 비단, 461×248.6cm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조선후기 회화편 IV』4, p.297)

북한불화와 단청이 단편적으로 소개되었다. 이때 공개된 대표적인 불화가 평양조선미술관에 소장된 義坦이 1662년에 제작한 <아미타불회도>이다(도 13). 남한에도 현전하는 17세기 불화가 드문 상황에서 의탄이 조성한 불화는 불보살을 비롯한 사천왕의 표현과 세부 장식 문양 및 채색법에서 18세기 불화와 화풍에 있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아미타불회도>의 화기 전문이 소개되지 않아 단언할 수 없으나 불화를 제작한 의탄은 담양 호국사 소장 <은적암 목조아미타불상>(1660) 복장 발원문에 기록된 “影畫 義坦比丘”와 동일인으로 짐작된다.¹⁶

은적암 불상 발원문에 기록된 화승 의탄과 평양조선미술관 소장 <아미타불회도>를 제작한 의탄이 동일인이라면 『재산목록』에

서 확인되었던 함경도의 의겸, 각충, 설훈, 유성의 활동에 앞서 17세기에 이미 남쪽 화승이 북쪽 사찰에서 활동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북한에 소재한 불화 외에도 북한 불화는 해외 옥션이나 기타 경로로 우리나라에 유입되기도 하였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국내 유입 북한 불화는 표 3과 같으며 이외에도 공개되지 않은 상당수의 불화가 국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⁷ 국내에 유입된 북한 조선후기 불화 중 <묘향산 병풍암 아미타불도>(1737)와 <용연사 삼세불도>(18세기 전반)는 경상도와 전라도 거점을 둔 화승들이 평안도와 함경도에 초청되어 조성한 불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¹⁶ <은적암 목조아미타불상 발원문>, “順治十七年庚子五月十三日造成 彌陀一軀畢功安于龍龜山晦迹庵…畫員秩相畫應惠比丘 海機比丘 中者萬生印性比丘 影畫義坦比丘 戒機比丘 神伊…”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남도 자료집』(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6), p.337

¹⁷ 국내 유입 조선후기 불화가운데 함경도 성불사 현왕도와 제석신증합부도에 관한 연구로 정명희, 『봉안 공간과의 레의 관점에서 본 조선후기 현왕도 연구』, 『美術資料』78(2009), pp.96-126.

〈표 3〉 국내 유입 북한 불화

유물명	연대	화승	주요 소임	소장
평안도 서광암 관음보살도	1725	龍眠 太白山人 瑞淸比丘 日暎	證師比丘 瑞記 化主 謙都監 尹應瑞 化主 謙別座比丘 信悅	국립중앙 박물관
평안도 묘향산 병풍암 아미타불도	1737	畫工比丘 瑞澄 畫員 瑞淸	證師比丘 淸梅	개인
함경도 용연사 삼세불도	18세기 전반	畫師比丘 義謙 最閑	證師比丘 粹白	진 칠불사
함경도 성불사 제석신증합부도	1798	金魚山人 普訓 片手山人 暎謙比丘 達悟比丘 德敏	證師 汀谷性洳 化主 龍雲能闊 化主山人 說	국립중앙 박물관
함경도 성불사 현왕도	1798	金魚山人 普訓 片手山人 暎謙比丘 達悟比丘 德敏	證師 汀谷性洳 化主 龍雲能 化主山人 寬說	국립중앙 박물관



도 14 <묘향산 병풍암 아미타불도>, 1737년, 비단, 98.2×66.7cm(국외 소재문화재재단 제공)



도 15 <불영사 삼장보살도>, 1739년, 삼베, 189.5×222.7cm(『한국의 불화-불국사본말사』38, 도 14)

<묘향산 병풍암 아미타불도>를 제작한 화승은 瑞澄과 瑞淸이다(도 14).¹⁸ 서징은 1739년에 密機가 주도하는 <불영사 삼장보살도> 제작에 보조 화승으로 참여하고 1744년에 卍冠이 제작을 지휘하는 <직지사 삼세불도>에

서 동화사 화승으로 기록된 서징과 동일인으로 판단된다(도 15). 밀기는 소위 팔공산화파로 지칭되는 의균, 석민, 쾌민, 굉원 등이 제작한 불화 형식과 화풍을 계승해 <정수사 지장시왕

¹⁸ <묘향산 병풍암 아미타불도> 화기: 乾隆二年丁巳三月日妙香山屏風巖彌陀幀一座 〇二緣化秩 證師比丘 淸梅 持殿比丘 行(策/業) 畫工 比丘 瑞澄 畫員 瑞淸 供養主 信 〇 化主 秩 居士 雲華 比丘(福) 佑 居士 惠杖 居士 道行 別座比丘 法奇 大施主 秩 明月 舍堂 〇 月 淸 信 居士 雲華.



도 16 <용연사 삼세불도>, 18세기 전반, 비단, 233 × 309cm, 필자촬영



도 17 <갑사 삼세불도>, 1730년, 삼베, 441 × 285.5cm, 440 × 284.5cm(『한국의 불화-마곡사본말사(상)』 15, 도 1, 도 2)



도 18 <화엄사 삼신불도>, 1757년, 비단, 438 × 295cm, 437 × 297cm, 438 × 298cm(『한국의 불화-화엄사본말사』 11, 도 1, 도 2, 도 3)



도>(1731), <대전사 영산회상도>(18세기 전반) 등을 조성하였고 1744년에는 팔공산 운부사에 주석하던 중 <직지사 삼세불도>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¹⁹

¹⁹ 밀기가 팔공산화파의 화풍을 계승하였다는 의견과 서징과의 관련성은 이용윤, 『조선후기 嶺南의 佛畵와 僧侶門中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p.47-50.

서징과 밀기의 관계, 동화사의 주석 등을 고려하면 서징 역시 팔공산화파의 영향을 받은 화승으로 판단된다. 이런 연관성은 <묘향산 병풍암 아미타불도>의 화풍에서도 확인된다. 불보살의 얼굴은 기존에 밀기를 비롯한 팔공산화파의 존상 표현과는 차이는 있지만 불보살 복식의 끝단과 군의 등을 장식한 금니화문은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전반까지 팔공산화파가 구사했던 표현기법이다. 이처럼 서징이 조성한 <묘향산 병풍암 아미타불도>는 17세기 말~18세기 전반 팔공산 권역에서 번성했던 팔공산화파가 인근 지역만이 아니라 평안도까지 초창되어 활동하였음을 보여준다.²⁰

<용연사 삼세불도>는 화기가 훼손되어 정확한 제작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의견이 천불산 개심사에서 조성하여 함경도 정평 용연사에 봉안한 불화이다(도 16).²¹ <용연사 삼세불도>는 의견이 주 활동지인 전라도를 벗어나 원거리인 함경도 불사에 초창되어 제작한 불화의 실제 사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재산목록』에 기록된 1730년대 함경도에서 활동했던 의견의 행적을 뒷받침한다.

<용연사 삼세불도>는 의견이 기존에 제작한 세 화면으로 구성되는 대형 후불도인 <갑사 삼세불도>(1730), <화엄사 삼신불도>(1757)와는 다르게 석가불, 약사불,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설법회를 한 화면에 그렸다(도 17, 도 18). 삼세불은 약사불과 아미타불이 주불인 석가불을 향하게 구성하고 화면 하단에 각 여래의 협시보살과 사천왕을 배치하고 석가불 좌우에 십대제자, 약사불 우측에는 십이신장, 아미타불 좌측에는 금강과 팔부중 등을 표현하였다.²² <용연사 삼세불도>는 얼굴 표현에 있어 <갑사 삼세불도>와 <화엄사 삼신불도>의 중간 단계로 보이며 어깨너비와 허리길이 등의 신체 비율에 있어서는 <갑사 삼세불도>과 유사하다. 현재 정평의 용연사는 폐사되어 이 삼세불도가 국내에 유입되기 이전에 북한의 어느 사찰에 봉안되었는지 알 수 없다.²³ 다만 정평의 인근 지역인 단천 동덕사에서 <용연사 삼세불도>를 모

²⁰ <묘향산 병풍암 아미타불회도> 제작에 참여한 또 다른 화승 서청은 <서광암 관음보살도>의 수화승 서청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는 화기에 서청을 “龍眠太白山人”이라 표기한 점이 18세기 전반 경북 성징, 세관 등 황악산수화승을 지칭하는 용어이고 1744년 <직지사 삼세불도> 제작에 팔공산화파 화승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²¹ <용연사 삼세불도> 화기 : ①.....成(于)○○○○山開心寺移安于定平龍淵寺 畫師比丘義謙(保) 最閑 證師比丘粹白 別座比丘幸(訓) 供養主比丘靈 ○比丘性○○○ 化主比丘祖 ○比丘 ○②大施主嘉善比丘○○ 大施主嘉善比丘○○ 大施主嘉善比丘大平 嘉善比丘信○ 通政比丘信○通政○○○○.

²² <용연사 삼세불도>는 한때 김천 칠불사에서 소장하고 있었다. 정병모, 『金泉七佛寺 三世佛會圖 考察』, 『동악미술사학』7 (2006), pp.327-340.

²³ 용연사는 『범우고』(1799)와 『가람고』에 함경도 정평 소재 사찰로 수록되었으나 『사찰고』(1910)에는 없는 것으로

사한 삼세불도가 대웅전에 봉안된 것이 확인되어 이 지역에서 반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사찰 봉안 불화 중에는 <용연사 삼세불도>와 유사한 형식과 화풍으로 그려진 삼세불도가 황해도 연천 심원사 보광전 후불벽에 걸려 있다. <심원사 삼세불도>는 현대에 모사한 불화로 보이며 <용연사 삼세불도>와 비교해 보면 후불벽에 맞춰 화면 폭이 좁고 화면에 맞춰 사천왕과 호법신이 상하에 배치한 것을 제외하고 주불과 협시보살 등의 구성이 용연사 불화와 동일하다. 한편 1990년 복원된 광법사 대웅전에는 <심원사 삼세불도>를 다시 모사한 듯한 후불도가 봉안되기도 하였다.

<용연사 삼세불도>와 유사한 형식과 화풍으로 모사된 <심원사 삼세불도>의 존재는 의겸이 함경도뿐만 아니라 황해도에서도 활동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덕사, 심원사, 광덕사에 봉안된 삼세불도 모사도는 의겸의 불화가 현대 북한에서도 예술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²⁴

IV. 18세기 함경도에서 활동한 화승과 승려문중

조선후기 불화 연구에 있어 이를 제작하는 수화승의 특징 중 하나는 명산과 명찰을 거점으로 한 지역성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점이다. 이 지역성은 화승들의 정체성과 연계되어 학계에서는 의겸의 경우 전라도 혹은 호남 화승, 설훈은 경성화승 혹은 서울·경기 화승, 그리고 유성은 경상도 혹은 영남 화승으로 분류하고 그의 활동 범위와 영향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석왕사와 귀주사 본말사가 분포된 함경도 지역 사찰에서 확인되는 기록과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은 그동안 “전라도, 경상도, 충청남도, 서울·경기도”등 지역성이 곧 해당 화승의 정체성처럼 인식되었던 화승들이 그 지역성을 넘어 함경도에서 불화를 제작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화승들이 인접 지역으로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성을 뛰어넘는 먼 거리까지 이동하여 불화를 조성하게 된 배경으로 화승을 초청해 불화 제작을 맡기는 사찰 불사를 주도하는 승려문중과 관련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에 화승이 지역성을 벗어나 원정 불사를 참여한 사례로 1729년에 성주사 불사

의 황악산 화승 澄性과 1788년에 남장사 불사에 초청된 호남화승 快允과 경성화공 상겸 등을 꼽을 수 있다.

성징은 18세기 전반 황악산 직지사를 거점으로 봉곡사, 용문사 등 경상북도 서북부에 주로 활동하였으며 이례적으로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성주사에 초청되어 불상 개금과 삼단 불화 및 암자 불화 15건을 제작하는 불사를 맡아 마무리하였다. 성징이 성주사 불사까지 맡게 된 배경에는 성주사 불사를 주관하는 승려 眞淨이 성징과 같은 벽암문중이기에 가능하였다.²⁵ 1788년 남장사 불사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불[대승]화공만이 아니라 경성화공, 호남화공 등 다른 지역 화승들이 초청되어 명부전 불상의 개금·개채, 명부전 불화 및 괘불도 조성 불사를 서로 분담해 작업하였다. 1788년 남장사 불사에 다른 지역의 화승들이 모여 협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불사의 증사인 括虛取如, 南岳暎晤, 影波聖奎가 모두 환성문중이고 각자 자신이 활동하던 지역의 화승집단을 초청하였기에 성사될 수 있었다.²⁶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라도 화승 의겸의 함경도 활동과 서울·경기도 화승 설훈, 경상도 화승 유성 등이 함경도까지 초청된 배경에도 화승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한 승려문중이나 출신 문중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겸의 활동과 관련해 주로 언급되는 승려문중은 부휴계 승려문중이다. 이는 의겸의 주 활동지인 전라도의 대부분 사찰이 임진왜란 이후 부휴선수와 벽암각성에 의해 중창되고 그의 후손들이 세거하면서 사찰 불사를 주도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 특히 1724년~1725년 의겸의 주도로 추진된 송광사 불화 조성에서 불사를 이끄는 주요 승려는 백암성총의 제자 友溪 雋益과 碧悟初炯을 비롯해 無用秀演의 제자 影海若坦과 普應偉鼎 등 벽암각성의 후손들이다. 또한 의겸이 조성한 괘불도와 삼장보살도가 벽암각성이 감수한 『오종범음집』과 석실명안과 무용수연의 서문이 있는 『범음산보집』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겸은 불화 조성 활동만이 아니라 도상과 형식 창출에 있어서도 부휴계 승려문중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²⁷

최근 의겸의 범명과 범호가 적힌 <傳法偈>가 공개되면서 의겸이 청허휴정, 편양언기에 서 이어진 喚惺志安(1664~1729)의 법맥을 계승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도 19).²⁸ <전법계>

²⁵ 이용윤, 「조선후기 黃嶽山 畫僧의 활동과 碧巖門中의 助力」, 『美術史學研究』297(2018), pp. 156-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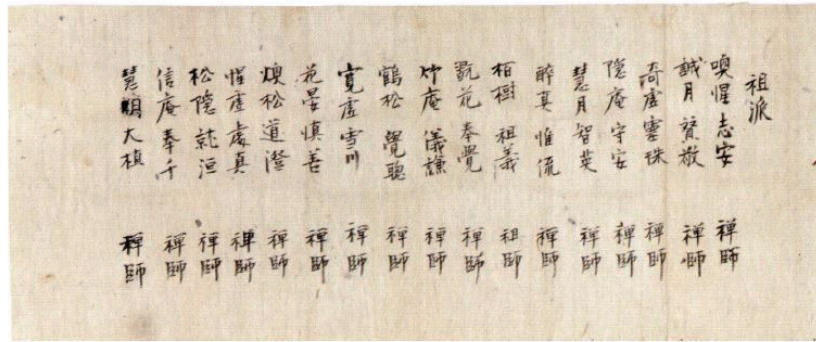
²⁶ 이용윤, 「退雲堂 信謙佛畫와 僧侶門中의 後援」, 『美術史學研究』269(2011), pp. 77-78.

²⁷ 정명희, 「儀式集을 통해 본 掛佛의 圖像的 변용」, 『불교미술사학』2(2004), pp. 6-28; 이용윤, 「朝鮮後期 三藏菩薩圖와 水陸齋儀式集」, 『미술자료』72-73(2005), pp. 110-112.

²⁸ <전법계>는 2009년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僧’에서 공개되었다. <전계서>의 죽암의겸을 화승 의겸으로 설정하고 관허설훈이 환성지안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법맥을 계승했다는 의견은 최학, 앞의 논문, pp. 191-197.

보아 20세기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²⁴ <동덕사 삼세불도>, <심원사 삼세불도>, <광법사 삼세불도>는 『북한의 전통사찰-자강도·함경남도』, p. 150, 『북한의 전통사찰-황해도』, p. 182, 『북한의 전통사찰-평양·평안남도』, p. 32 도판 참고.



도 19 <전법계>, 19세기말, 종이, 29.4×53.5cm(『僧·求道者의 길』, 도 65)

에 기록된 승려들의 생몰년과 활동기간을 고려하면 竹庵義謙이 과연 화승 의겸인가 하는 의문이 있지만, <전법계>에 적힌 환성지안의 8세 甄花奉覺, 9세 竹庵義謙, 10세 鶴松各聰, 11세 寬虛雪訓, 12세 花晏慎善, 13세 煥松道澄 등이 모두 18세기~19세기에 활동한 화승이며, <전법계>에 사자상승 관계로 기록된 봉각과 의겸이 1713년에 보림사 불화 조성에서 수화승과 차화승으로 활동한 사실을 고려하면 잘못된 기록으로 단언하기 어렵다.

의겸이 활동하던 시기에 환성지안의 제자 虎巖體淨(1687~1748)이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두각을 보였다. 호암체정은 환성의 또 다른 제자인 북방의 함월해원과 더불어 남방의 명사로 이름이 높았으며 대흥사에서 화엄법회를 개최 이후 제자 중 燕海廣悅, 萬化圓悟, 靈谷永愚, 蓮潭有一 등은 대흥사 12大宗師와 講師에 이름을 올렸다.²⁹ 의겸이 환성지안의 후손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의겸이 주 활동지를 벗어나 제작한 <해인사 영산회상도>(1729)와 <통도사 지장보살도>(1745)가 호암체정의 남방 사찰이었고 그가 금강산 표훈사 원통암에서 입적했다는 사실은 의겸의 함경도 활동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³⁰

의겸이 청허계 환성후손이면서 부휴계 승려들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불화를 제

²⁹ 김용태는 17세기 후반 편양문중이 대흥사에 진출하여 18세기에는 이전 세력인 소요문중과 공존하다 점차 편양문중이 세력이 강화되었다고 보았다.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신구문화사, 2010), pp. 129-143.

³⁰ 『虎巖宗師傳』, 『東師列傳』참고; 1740년에 간행된 『五種梵音集』의 서문에는 청허계의 설송연초와 호암체정, 부휴계의 회암정혜의 서문이 실려 있다. 간행 당시 호암체정은 해인사 국일암에 주석하였다. 해인사 국일암은 벽암각성의 승탑이 세워져 있고 진영을 봉안한 碧巖堂이 있다. 이로 보아 호암체정은 벽암문중과 호의적 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통도사 지장보살도>에 관한 기록은 통도사 소장 『寺有財産目錄·佛像及古物之部』(1927)에 실려 있다. 주 12참고.

작했다는 추측은 그가 함경도로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의겸이 불화를 남긴 함경도 안변 보현암, 영덕 안불사, 덕원 무달사, 정평 용연사는 석왕사의 영향권에 있는 사찰이다. 조선후기에 석왕사는 부휴계 문중과 청허계 문중이 교차하며 세거했던 사찰이다. 즉 부휴계 승려인 벽암각성과 그의 제자 翠微守初(1590~1668) 등은 17세기 석왕사를 재건·중수하는데 역할을 하였으며, 涵月海源(1691~1770), 甄月軌泓, 雷默等麟, 映虛善英 등으로 대변되는 청허계 환성문중이 18세기 이후 석왕사 불사를 이끌었다.³¹ 부휴계와 청허계가 운영한 석왕사의 역사를 반증하듯 경내에는 취미수초의 승탑과 탑비(1674), 함월해원의 승탑과 비(1774)가 전한다.³²

취미수초는 1609년에 부휴선수와 벽암각성이 중창한 송광사에서 적전제자로서 송광사에도 그의 승탑이 세워져 있다. 석왕사와 다르게 송광사에서 취미수초의 법맥은 백암성총, 무용수연, 영해약탄, 풍암세찰 등으로 이어졌고 문중이 크게 번성하였다. 1724년~1725년에 의겸이 송광사 불화를 제작할 때에 영해약탄, 벽오초형 등 백암성총의 제자들은 증명을 맡아 의겸의 활동을 뒷받침하였다(표 4). 의겸의 함경도 활동은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송광사와 석왕사의 세거문중의 변화 및 <전법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휴계 승려문중과 청허계 환성문중을 기반으로 한 원정 활동으로 해석된다.

의겸에 이어 함경도에서 활동한 화승 중 설훈과 유성은 청허계 환성문중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설훈과 유성의 함경도 활동과 관련해 주목되는 인물로 友雲菊密이 있다. 우운국밀은 설훈이 <개심사 관경변상도>(1767)와 <문수사 지장시왕도>(1774)를 제작할 때 증사를 맡았으며 유성이 <개심사 영산회괘불도>(1772)와 <직지사 극락세계구품도>(1778)를 제작할 때에도 증명을 담당하는 등 두 화승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현재 <友雲堂大禪師國密眞影>(18세기 후반)이 안동 광흥사에 봉안되어 있다(도 20). 1774년 우운국밀을 증사로 모시고 설훈이 조성한 <문수사 지장시왕도>에서 출토된 복장물 중에는 1773년에 문중 아우인 聖岸과 法明이 우운국밀에게 보낸 한문 서간이 발견되었다.³³ 한문 서간에 등장하는 성안

³¹ 벽암각성이 석왕사 재건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취미수초의 『翠微大師集』, 『安邊雪峰山釋王寺重修序』와 함월해원의 『天鏡集』, 『釋王寺大雄殿上樑文』에서 찾을 수 있다. 『석왕사 재산목록·석물편』에는 함월해인, 완월개홍, 뇌묵 등린, 영허선영의 승탑과 비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환성지안의 후손이자 함월해원 제자와 손제자이다.

³² 『석왕사 재산목록·석물편』에는 취미수초비와 승탑에는 “崇禎紀元后四十七年甲寅四月立”, 함월해원의 비와 승탑에는 “雍正紀元后三甲午立(雍正三十九年)”의 건립 시기가 적혀 있다.

³³ (전면) “京畿修碑所門第 聖岸法明○友雲老兄三昧下回納/(후면) …癸巳四月二十三日門弟 聖岸法明”. 한문 서간 사진 자료는 수덕사성보박물관에서 제공받았다.



도 20 <광홍사 우운당대선사국밀진영>, 조선후기, 비단, 119.8×68.4cm(『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남도 Ⅲ』1, p.25)

은 함월해원의 『天鏡集』을 편찬한 翠雲聖岸으로 서간의 내용대로라면 우운국밀 역시 함월해원의 문도이다.

함월해원은 환성지안의 제자로 편양언기에서 월담설제의 법맥을 계승하였고 주 활동지는 석왕사를 거점으로 한 함경도이다. 17세기 말에 月潭雪霽를 따라 환성지안이 직지사와 속리산 일대에 활동하고 1690년 직지사 화엄법회에서 모운진언의 법석을 물려받은 후 경상도에 환성지안의 제자들이 정착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18세기 전반 환성지안의 제자인 醉眞處林은 남장사, 臥雲信慧는 용문사, 抱月楚旻은 봉정사 등 경상도 주요 사찰에 세거하였고 18세기 중엽부터 함월해원의 제자인 영파성규, 翫月軌弘 등이 김룡사, 은해사, 직지사, 통도사 등지에서 활동하였다.³⁴ 함월해원 문도가 번성하던 18세기 중후반 안동 광홍사에 주석한 우운국밀이 의성, 안동 일대에서 활동하였던 설훈, 유성과 충청남도 서산에서 증사와 화승으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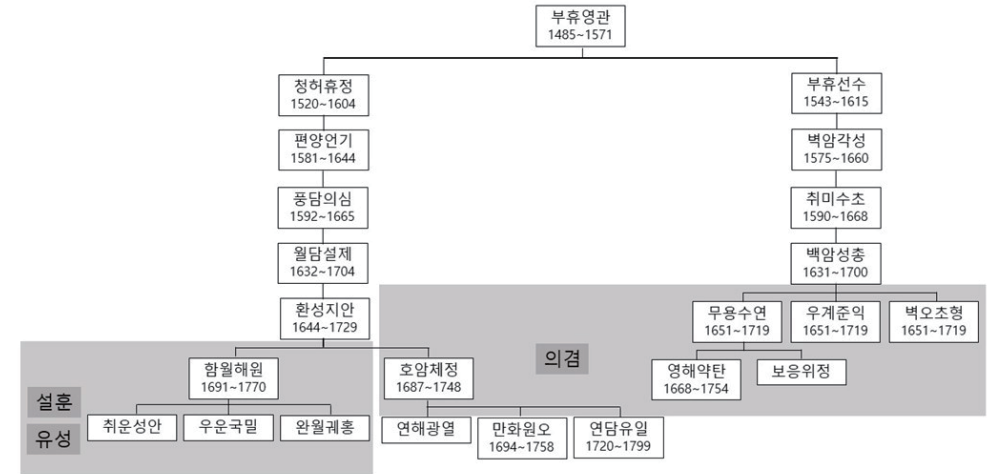
심사와 문수사불사를 함께 했다는 사실은 이미 두 화승이 환성문종을 기반으로 경상북도와 충청남도, 나아가 경기도와 함경도로 활동범위를 확장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유성은 1776년에 환성의 후손이자 포월초민의 법손인 月岩旨開에게 환성지안, 포월초민, 雪峯思旭 등 직계 선사들의 진영 제작을 의뢰받을 정도로 환성문종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설훈과 우운국밀이 경상북도에서 함께 한 자료는 없으나 북홍사 불화(1788)와 현등사 불화(1790)에서 화연관계가 확인되는 용봉경환과 상겸이 1780년에 광홍사가 위치한 학가산 애련암에서는 환성지안의 후손인 남악영오를 증사로 모시고 영산회상도, 신중도를 조성했다는 사실은 설훈이 이끄는 화승집단 역시 경상북도에서 환성문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함월해원의 제자 완월계홍이 1762년에 직지사 천불전에 <毘盧殿> 현판을 쓴 뒤 1785년에 유성과 설훈이 직지사 비로전의 천불상 741위를 중수하고 259위를 새로 조성했다는 사실은 18세기 후반까지 지속된 경상북도에서의 조형

³⁴ 이윤운, 앞의 논문(2015), pp. 131-136.

활동은 환성문종과 연계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표 4).³⁵

< 표 4 > 의겸, 설훈, 유성과 승려문종의 관계도



이처럼 18세기 후반 설훈과 유성은 경상도에 진출한 청허계 환성문종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을 넘어 서울·경기도와 충청남도, 함경도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하며 사찰 불사에 매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V. 맺음말

분단 이전인 일제강점기의 사찰 재산문서와 유리건판은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북한의 사찰과 불교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 글에서는 유리건판에서 부차적인 문화재로 소개되었던 북한 불화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의 사찰 재산문서 중 석왕사, 귀주사, 유점사 등 함경도와 강원도의 본말사 『재산목록』에 집중해 조선후기에 조성된 북한 불화를 살펴보았다.

³⁵ <千佛像造成記>(1785)와 <毘盧殿>현판의 내용은 『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북도 II 자료집』(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pp. 125-126, p. 154 참고.

함경도와 강원도 등 북한 사찰 『재산목록』에서 불화와 관련해 파악되는 사실 중 하나는 조선후기에 이 지역의 불화를 조성한 화승의 상당수가 오늘날 학계에 남쪽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진 화승이라는 점이다. 이들 중에는 석왕사 화승 석옹철유처럼 북한지역에 기반을 둔 화승도 있지만 18세기에 전라도, 경상도, 서울·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한 의겸, 각충, 설훈, 유성, 상겸 등이 포함이 되어 흥미롭다. 지금까지 이들 화승은 거점지역을 두고 인근 지역 사찰의 활동 반경을 확장하며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재산목록』을 통해 석왕사와 귀주사 본말사가 분포한 함경도까지 원정 불사를 하였음이 드러났다.

북한 불화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유리건판에 소개된 조선후기 불화와 『재산목록』의 내용을 통해 수화승을 중심으로 한 화승집단의 활동 양상, 이들이 구사한 화풍적 특징 등이 북한 불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에 유입된 북한 불화 중 서징의 <묘향산 병풍암 아미타불도>(1737)는 함경도만이 아니라 평안도 사찰에서도 팔공산화파를 초청해 제작한 불화로 조선후기 화승들의 행보가 전국에 걸쳐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의겸의 <용연사 삼세불도>(18세기 전반)는 『재산목록』에서만 확인되는 1730년대 의겸의 함경도 활동을 뒷받침하는 불화로써 의미가 있다.

일제강점기 사찰 재산문서와 유리건판에서 확인되는 북한 불화의 특징은 조선 후기 화승들의 정체성처럼 언급되는 지역성을 뛰어넘는 남과 북을 넘나드는 광폭의 행보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남쪽에 거점을 둔 화승들이 북쪽에서도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의겸과 설훈의 사례를 통해 청허계와 부휴계 승려문중과 형성했던 조력관계를 고찰해보았다.

***주제어(key words)** 사찰 재산문서(寺刹 財産文書, Property List of Temple), 유리건판(Gelatin Dry Plate Negatives), 석왕사(釋王寺, Seokwangsa Temple), 의겸(義謙, Uigyeom), 설훈(雪訓, Seolhun), 유성(有誠, Yuseong), 벽암 각성(碧巖 覺性, Byeogam Gakseong), 환성 지안(喚惺志安, Hwanseong Jian)

■ 투고일 2019년 8월 28일 | 심사개시일 2019년 9월 9일 | 심사완료일 2019년 9월 25일 ■

참고문헌

1. 사료

- 『翠微大師集』(『韓國佛教全書』8, 동국대학교출판부, 1987)
 『天鏡集』(『韓國佛教全書』9, 동국대학교출판부, 1988)
 『東師列傳』(『韓國佛教全書』10,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西域中華海東佛祖原流』(『韓國佛教全書』10,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天地溟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제3집, 1993)

2. 한국어 문헌

- 『양천사』 조선문화보존사, 2002.
 리인철·류덕인, 『우리절 안내』, 조선문화보존사, 2003.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북한의 전통사찰』1~10, 양사재, 2011.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국립중앙박물관, 2014.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강영철, 「19세기 초 경기지역 華嶽 華潭門中の 畫僧」, 『동악미술사학』5, 2004.
 _____, 「1774년 文殊寺 靑蓮庵 佛事의 現場資料-首 畫僧 雪訓의 書文信을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7, 2006.
 안귀숙, 「朝鮮後期 佛畫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관한 研究(上)(下)」, 『미술사연구』8·9, 1994-1995.
 李炳熙, 「朝鮮時期 寺刹의 數의 推移」, 『歷史教育』61, 1997.
 이용윤, 「『佛事成功錄』을 통해 본 남장사 괘불」, 『尙州 南長寺 掛佛幀』6, 통도사성보박물관, 2001.
 _____, 「朝鮮後期 三藏菩薩圖와 水陸齋儀式集」, 『미술자료』72·73, 2005.
 _____, 「退雲堂 信謙 佛畫와 僧侶門中の 後援」, 『美術史學研究』269, 2011.
 _____, 「조선후기 嶺南의 佛畫와 僧侶門中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_____, 「조선후기 黃嶽山 畫僧의 활동과 碧巖門中の 助力」, 『美術史學研究』297, 2018.
 이혜인, 「近代 畫僧 石翁堂 喆有의 佛畫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정명희, 「儀式集을 통해 본 掛佛의 圖像의 변용」, 『불교미술사학』2, 2004.
 _____, 「봉안 공간과 의례의 관점에서 본 조선시대 현왕도 연구」, 『美術資料』78, 2009.
 _____, 「북한의 불교회화」,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국립중앙박물관, 2014.

정병모, 『金泉七佛寺三世佛會圖考察』, 『동악미술사학』7, 2006.
 최 엽, 『高山堂竺演의佛畫研究』, 『동악미술사학』5, 2004.
 ———, 『近代 서울·경기지역佛畫의 畫師와 畫風』, 『佛敎美術』19, 2008.
 최 학, 『조선후기 화승 관허당 설훈 연구』, 『강좌미술사』39, 2012.
 황인규, 『북한지역 사찰의 불교사적 의의』, 『대각사상』17, 2012.

3. 데이터베이스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조사자료(<http://www.museum.go.kr>)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kabc.dongguk.edu/>)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지리지종합정보(<http://kyujanggak.snu.ac.kr/geo/>)

국문초록

일제강점기에 전국의 사찰은 사찰령에 따라 본말사로 개편되고 각 사찰의 불상, 불화, 서적, 석물, 고문서 등은 『재산대장』, 『재산목록』으로 문서화되고 유리건판으로 기록화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사찰 재산문서와 유리건판은 분단 이후 접근이 어려운 북한의 사찰과 불교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 불교문화재 가운데 그동안 부수적으로 소개되었던 북한의 불화를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의 사찰 재산문서 중 석왕사, 귀주사, 유점사 등 함경도와 강원도의 본말사 『재산목록』에 집중하여 조선후기에 조성된 북한 불화의 현황과 특징, 이를 조성한 화승에 대해 살펴보았다.

함경도와 강원도 등지에 분포한 북한 사찰의 『재산목록』에서 파악되는 사실 중 하나는 조선 후기에 이 지역에서 활동한 화승의 상당수가 남쪽에서 활동했던 수화승들이라는 점이다. 이들 중에는 석옹 철유처럼 북한에 기반을 둔 화승도 있지만 18세기에 전라도, 경상도, 서울·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의겸, 각충, 설훈, 유성, 상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산목록』에 기록된 이들 화승이 제작한 불화는 기존에 알려진 활동 지역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석왕사와 귀주사로 대변되는 함경도에 분포한 사찰에 봉안되었다.

북한의 조선후기 불화는 『재산목록』에 의해 제작 시기와 조성 화승이 일부 밝혀지고 유리건판 속 불화를 통해 해당 화승의 화풍을 이해하고 그 화풍이 조선후기에 남쪽에서 제작된 불화의 화풍과 그 흐름이 같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에 유입된 북한 불화 중 서경의 <묘향산 병풍암 아미타불도>(1737)와 의겸의 <용연사 삼세불도>(18세기 전반)를 통해 조선 후기 화승들의 행보가 함경도만이 아니라 평안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1730년대 기록으로 전하는 함경도에서 의겸이 조성한 불화의 화풍을 살펴 보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사찰 재산문서와 유리건판으로 확인되는 북한 불화의 특징은 조선 후기 화승들의 정체성처럼 언급되는 지역성을 뛰어넘는 남과 북을 넘나드는 광폭의 행보이다. 조선후기 남쪽에 거점을 둔 화승들이 북쪽에서도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들의 출신 승려문중 혹은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던 승려문중의 조력 관계를 제시해 보았다.

Late Joseon Buddhist Paintings in North Korea in Documents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Hamgyeong-do and Gangwon-do

Lee, Yong-yun *

Under the Temple Act of 1911, legislat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Buddhist temples in Korea were re-organized into head and branch monasteries. The Buddhist sculptures, paintings, books, stone monuments and archives at temples were inventoried and property lists were compiled. They were also documented in gelatin dry plate negatives. Today, the property lists and negatives serve to provide crucial information in studying and understanding the temples and Buddhist cultural heritages of North Korea which have become available since the division of Korea in 1945.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property lists of Seokwangsa Temple, Guijusa Temple, Yujeomsa Temple, and other temples in Hamgyeong-do and Gangwon-do to examine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te Joseon Buddhist paintings, now in North Korea and only briefly introduced in South Korea, and the monks who painted the works.

The property lists of temples in Hamgyeong-do and the North Korean areas of Gangwon-do reveal that most of the monk-painters who were active in the region were also active in the southern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Some monk-painters, like Seokong Cheolyoo, worked mostly in the north, but the lists also include names like Uigyeom, Seolhun, Yuseong, and Sanggyeom whose activities were centered around Jeolla-do, Gyeongsang-do, Seoul, or Gyeonggi-do. The property lists show that paintings by these monk-painters were placed in Seokwangsa Temple, Guijusa Temple, and other monasteries in Hamgyeong-do, which are

situated at a large distance from the regions where the monk-painters were previously known to have been active.

Not only the production dates and painters of the Buddhist paintings in North Korea, but the occasional gelatin dry plate negatives also help to understand the style of each painter, and show that they were the results of the same painting traditions as the Buddhist paintings made in the south. The examples of the northern paintings now in South Korea, *Amitabha Buddha* (1737) of Byeongpoong-am, Myohyang-san Mountain, painted by Seojing, and *Buddhas of Three Ages* (early 18th century) at Yongyeonsa Temple by Uigyeom show that the late Joseon monk-painters worked not only in Hamgyeong-do but also in Pyeongan-do, and made it possible to study the Buddhist painting traditions in Hamgyeong-do established by Uigyeom in the 1730s.

Examinations of the temple reports and gelatin plates of the Buddhist paintings made during the colonial era reveal that the late Joseon monk-painters transcended the regional style, commonly known as their main identity, and that they were active in large area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As the monk-painters from the south could also work in the north, it can be suggested that there existed a support system in Buddhist schools or a close cooperation system between different schools.

* Senior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